*한처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천지와 주야와 물결의 움직임과 영혼육을 창조하였다. 그는 처음과 끝이며 만것에게 화복을 내려주며 완전하며 성결하며······*

“[스스로 있는 자가 한처음에 천지와 주야와 물결의 움직임과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창조하였다. 그는 시종(始終)이며 완전하며 성결하며······] 여기까지가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말로만 들어봐왔던 예언서의 시작부다. 예언서는 세상에서 두번째로 가장 오래된 책인 「메으 오뢰덴 췌크」에 기입될 정도로 그 연수가 오래됐지만 정확한 기원은 아직까지도 미지에 싸여 있다. 「메으 오뢰덴 췌크」의 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오늘날처럼 인쇄술의 혜택으로 가정마다 하나씩 예언서가 있던 건 아니었고, 어떤 단체에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매일 낭독하는 식으로 구전되어 왔다. 이때만 해도 예언서는 많은 사람에게 그저 재밌는 이야기, 전설로만 여겨졌다. 그러다 오늘날로부터 200년 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바로나' 국가에 대한 예언이 실현됐다. 우린 이 사실이 외부세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왕가와 왕가 쪽 과학자들만 알 수 있게 하였고, 뭐 지금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실에 경악한 왕가는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어 예언서에 나온 각종 예언들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대비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방금 전 말했던 바로나 국가에 대해 계속 말해 보자면······.”

입학날 아침, 수많은 학생들이 정자세로 자리에 앉아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칠판 앞에 선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신데, 거친 수염과 우락부락한 생김새, 체육복 차림으로 인해 육체단련 선생님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런 선생님이 한 손에 두꺼운 예언서를 들고 점잖게 수업을 하고 계신다. 몇 분 전 교실에 들어오시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첫 수업부터 단련한다는 생각에 힘이 빠졌다. 그도 그럴게, 역사 선생님들 특유의 옷차림이 있고 육체단련 선생님들 특유의 옷차림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의 손에 든 예언서를 눈치채고 우리의 안색은 다시 생기가 돌았다.

예언서. 비록, 길거리에서 흙먼지 날리며 뛰노는 코흘리개 아이들도 익숙히 듣고. 밤이 될 때면 부모님이 침대 위에서 동화 대신 예언서를 읽어주며 잠에 들곤 하여도. 게다가 개인적으로 내게 예언서가 크게 느껴지더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지겹게 듣긴 했어도 누군가 다시 들려주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예언서. 학생들 중에서 흥분된 건 나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선생님은 안경을 들어 올리며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다시 수업을 이어 나가신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 [북쪽 하늘의 별들이 흑암 속에 삼켜지고 공허할 때 하늘에서 순백의 여섯 날개 있는 사람의 형상{마왕}이 슬피 눈물 흘리며 내려앉으리라]. [아름다운 그것이 땅에 내려앉을 때에 그 땅이 검게 문드러질 것을 보리라 그날 바로나는 무너질 것이며 백성들은 피가 썩어져 무덤에 내려가리라]. 200년 전 바로나 국가에 거주하던 {주인공 나라} 사람 몇 십 명이 동시에 목격한 사건이다. {주인공 나라} 사람을 제외한 전국민이 짙은 보랏빛으로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더군. 하얀 날개가 여섯 개 달린 사람 형상 목격담은 들리지 않았다. 또, 그날 밤에 북쪽 하늘 부근에 쌓여 있던 무수한 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도 함께 관측됐지. {주인공 나라}에서 천문학자들과 별의 마법사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 그 반면, 바로나로 파견나간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결론냈다. 무언가를 중심으로 크게 갈라지고 검어진 땅, 그리고 바로나 민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른들과 아이들의 피부가 짙은 보랏빛으로 주름져진 사체. 그 사체는 마치 피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것처럼 썩어졌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언서는 하나둘씩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옆나라인 바로나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다. 바로나는 우리나라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 {주인공나라}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다. 밤에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한 곳으로 모이더니 천사같이 생긴 아름다운 사람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더니 땅에 가까워질 즘에 땅이 검은색으로 변색되고 갈라지면서 무거운 것에 짓눌린 듯 내려앉았다. 천사가 땅에 가까워질수록 갈라지는 크기가 커지더니 무서워서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달려가는 도중에 말라 비틀어지며 쓰러졌다. 순식간에 마을은 초토화가 됐지만 {주인공나라}사람들은 모두가 죽은 가운데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시체들 중에 서있으며 살아남았다. 땅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 집도 잃고 이웃도 잃은 {주인공나라}사람들은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돌아오며 이 사실을 왕국에게 알리며 충격을 먹은 {주인공나라}는 바로나로 파견을 나간다.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일단 바이러스로 규명. 시체들을 격리하며 처리하지만 대부분의 시체들은 땅에 묻게 된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된다. 이상을 감지한 천문학자들은 {대충개쩌는만원경이름}으로 북쪽 하늘을 관측해본 결과, 천사로 추정되는 생명체 말라 비틀어지며 땅에 쓰러지는 바로나 백민들 속에서 왕가가 알아낸 예언서의 제 1 법칙. 두루뭉실한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미래를 적중한다. 제 2 법칙. 그려지지 않은 미래는 확률적이다. 이 두 법칙에 의거하여 예언서에 적혀 있지 않은 {주인공 나라} 사람들은 아무 상처 없이 그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살펴보고 끝났고 주위 바로나 국민들이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기에 논란이 되었지만 우리는 금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통칭, 북천성(北天星) 소멸 사건. 그때 사라진 북쪽 하늘의 별들은 {떡밥적 시간} 이후 대부분 돌아왔지만 현재까지도 몇 개가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예언을 제외한 바로나 국가 이야기]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의 칠판 앞에서 한 손에는 예언서를 들고 한 손으로는 안경을 올리며 수업을 하는 선생님. 체육복 차림에 거친 수염과 우락부락한 생김새지만 엄연히 역사 선생님이시다.

The oldest book

Koob tsedlo eth

쿱트 셀 도에스

The most beautiful flower

Rewolf lufituaeb tsom eth

리월프 루피투에브 섬 에스

바로나 바벨론

이라엘

라엘

북천성(北天星)

인생의 예언 : 생로병사의 어떤 미래가 오는지에 대한 예언이다

결국의 예언 :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다

세계의 예언 : 세계가 (위험에 빠지거나 특별한 일, 재앙 등) 어떻게 될 것이다, 에 대한 예언이다

신의 예언 : 신이 지성체에게 특별히 주는 예언이다

사후 비밀의 예언 :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예언이다

ㅁㅁ 예언 : 힘센 사람에게 깝치면 골로 간다는 예언

예언서는 기록서이기에 문학적이지 않다.

예언서에 써져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미래를 적중하지만 써져 있지 않은 미래는 무엇이 그려져도 상관이 없다.

천사는 메신저다